

책속인물에게 보내는 제6회 한글손편지

일기 검사는 날을 얻고

동민이에게

동민아 안녕? 난 5학년 소민이야

봄에 너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일기를 매일 써서 지켜주는 너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병학인 요즘 / 난 너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 우리반 병학수제가 일주일에 일기 5편 인거야. 물론 주말에는 안 써도 되지만 싫어하는 하루에 매일 가는

기분이라서 너가 얼마나 힘들지 알수있었어!

너는 병학인데 뭐가 힘들냐고 할수도 있어. 하지만 코로나 19와 4월말부터 시작된 장마때문에 밖에 못나가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라서 일기 쓸게가 없어. 이런 너 마음이 이해가 되지?

동민아, 나는 너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알게되었어. 너는 어른들이 왜 남의 일기를 확인하는지 궁금하고 확인하면 화가 난다고 했지?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특히 엄마가 일기 검사를 하고

말을 징그릴 때마다 긴장이 돼. 그래서 가끔은, 나도 일기를 안 쓰고 싶지만 숙제는 선생님의 약속이니 할 수 밖에 없어. 그런데 너는 용감하게 일기장에 당분간 일기를 못쓴다고 선생님께 편지를 썼잖아. 그래서 선생님께서님은 일기 대신 편지를 써도 된다고 하셨지? 그때 기분이 어땠나? 만약 편지 쓸 것도 싫다면 선생님께 일기 면제권을 만들어 달라고 해봐. 내가 일기 면제권을 얻는 방법도 알려줄게. 학생이 칭찬을 들 때마다 선생님이 스티커 1개씩을 주는 거야. 총 5개나 10개를 모으면 면제권을 받는 거지! 내가 2학년때 그러니까 일기 면제권을 받았는데 면제권을 받을 때마다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숙제하고 일기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어.

동민아! 지금 나는 숙제라서 억지로 일기를 쓰지만 가끔은 다쳐면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너와 내가 만나게 된다면 서로의 일기장을 공유해 보는 건 어때? 나도 너의 일기장을 보고 너도 나의 일기장을 볼수로써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지.

마지막으로 일기쓰기를 너무 싫어하는 너에게 일기를 좋아할수 있는 나만

